

‘150억’ 이대호 **금의환향**

<4년>

6년만에 롯데로 복귀...FA 최대 금액

‘빅 보이’ 이대호(35)가 6년 만에 친정팀인 롯데 자이언츠로 금의환향한다.

롯데는 24일 이대호와 4년 총액 150억원의 조건으로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KBO리그 역대 FA 최고액이다. 종전까지는 지난해 11월 24일 삼성 라이온즈에서 KIA 타이거즈로 이적한 외야수 최형우가 받은 4년 총액 100억원이 최고였다.

롯데는 부산을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확실하게 예우했고, 이대호도 선수 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롯데에서 태우고 싶어 해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

2012년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해 오릭스 버펄로스, 소프트뱅크 호크스를 거쳐 지난해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뛰었던 이대호는 이로써 6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대호는 구단을 통해 “미국에서 꿈

계약년도	팀 이름	총액
이대호 2017년	시애틀 매리너스(MLB)→ 롯데	150억원
최형우 2016년	삼성→KIA	100
박석민 2015년	삼성→KIA	96
최우찬 2016년	삼성→LG	95
윤석민 2015년	미국 볼티모어→KIA	90
최정 2014년	SK 전후	86
김광현 2016년	SK 전후	85
정호진 2015년	롯데→부산	84
김태균 2015년	한화 전후	84
정우람 2015년	SK→전북	84

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꿈을 이뤘다. 남은 것은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와 팀 동료, 후배들과 함께 우승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고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해외리그에서 뛰 동안에도 항상 저를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너무 그리웠고, 우리 팬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설렌다. 마음으로 대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신 구단에도 감사드린다. 부산에서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대호는 2001년 롯데 2차 1순위로 입단 이후 2011년까지 11시즌 동안 KBO리그 통산 1150경기에 나서 타율 0.309, 225홈런, 809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팀의 4번 타자로서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고 한국 프로야구 최초 타격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기록 등 최고 타자로서 활약했다.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을 남긴 후 올 시즌부터 롯데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대호의 입단식은 오는 30일 롯데 호텔 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대호가 친정팀인 롯데 자이언츠로 복귀한다. 롯데는 24일 이대호와 4년 총액 150억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우승·황금장갑·태극마크 욕심난다”

새 출발선에 선 KIA 안치홍

즐기면서 하게 된 야구

부상없이 초심으로 도전

새로운 출발선에 선 KIA 내야수 안치홍이 욕심을 버리고 또 채웠다.

2017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안치홍은 마음이 가볍다. 올 시즌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답하며 활짝 웃었다.

예전과는 달라진 표정과 마음가짐, 여유가 생겼다. 안치홍은 지난 9월 경찰청에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안치홍은 “처음 제대하고 왔을 때 긴장을 하긴 했는데 금방 적응했다. 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새로운 분위기에 야구를 하는 게 좋았다. 군복무에 대한 부담도 사라졌고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은 재미있게 즐기면서 야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은 안했지만 (김)선빈이 형도 같은 마음일 것 같다. 예전 같으면 경기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심각하게 있었을 것인데 더 여유가 생긴 느낌이다”고 말했다.

즐겁게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가을을 생각하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다.

안치홍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할 때도 다들 분위기가 좋게 했던 것 같다. 1차전부터 재미있게 경기를 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경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미안했다. 공은 보이는데 몸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지난 시즌 내내 안치홍을 괴롭혔던 등·허리 통증이 문제였다. 스윙을 할 때 통증이 오면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가을전지’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안치홍은 마무리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안치홍은 “마무리 캠프에 꼭 가고 싶



2017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KIA 안치홍이 챔피언스필드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었다. 감독님, 수석님도 바뀌셨고 새롭게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등 통증 때문에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멀리 보기로 했다. 그래서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프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몸만들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 안치홍은 비시즌에 재활에 집중을 했다. 웨이트와 체력보강으로 속도를 낸 안치홍은 지금은 방향미를 들고 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욕심 많은’ 안치홍이 야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예전의 고집스러운 욕심과 부담감을 버리고 여유롭게 차근차근 길을 걸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올 시즌부터 단추를 잘 꿰어가겠다는 생각

이다. 안치홍은 “팀에 존경할 수 있는 선배들도 많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야구를 하게 돼서 기대가 된다. 올해는 진짜 우리 팀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매해 ‘꼭 우승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우승을 말하는 느낌이 예전과 다르다. 올해는 우승이라는 목표가 크다.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뛰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골든글러브 같은 상이나 태극마크에도 즐겁게 도전하겠다.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동안은 내가 못 해서 안 됐다고 생각하고 초심에서 즐겁게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황재균 ML 샌프란시스코와 1년 스플릿 계약

25인 로스터 포함엔 최대 36억원

황재균(30)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오랫동안 간직한 메이저리거의 꿈을 펼친다.

황재균의 에이전트인 GSI는 24일 보도 자료를 내고 황재균이 샌프란시스코와 1년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플릿 계약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연봉에 차이를 둔다는 조건을 건 계약이다.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위험성이 내포된 불리한 계약이지만, 반대로 메이저리그 25인 로스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150만 달러(약 17억5000만원) 보장액에 출장 경기 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인센티브는 160만 달러까지 쟁길 수 있다. 최대 310만 달러(약 36억원) 규모의 계약인 셈이다.

비록 스플릿 계약이지만 계약 규모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을 끌어냈다. 여기에 황재균은 구단이 자신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을 때 다시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까지 삽입하기도 했다.

황재균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훈련할 때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줬다”며 “다른 팀에서도 제안을 받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나를 원하는 팀에서 뛰어야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황재균이 넥센 히어로즈에 밀려 때부터 그를 눈여겨봤다. 황재균이 2016시즌이 끝난 뒤인 지난해 10월 24일 FA자격으로 미국 플로리다에 개인 훈련을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부단장과 담당 스카우트 등이 직접 황재균 측에게 접촉했다.

황재균이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진정성과 더불어 주전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고민은 3루수 타율은 0.258로 내셔널리그 15개 구단 중 19위였고, 홈런은 17개로 14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자신있다”

우즈 18개월만에 PGA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복귀를 앞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가 몸 상태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우즈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한다.

우즈가 PGA 투어 대회에 나오는 것은 2015년 8월 윈덤 챔피언십 이후 18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재단이 주최한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했지만 이 대회는 PGA 투어 대회에 아니었다.

허리 부상을 입고 필드로 돌아오는 우즈는 24일 “지난 18개월 사이에 딱 한 차례 경기에 나섰다”며 “이제는 대회장에 나가서 경기를 좀 치러야 할 때가 됐다.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즈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을 시작으로 매우 빠른 일정 소화해야 한다. 2월 초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이어 2월 16일부터 제네시스 오픈에 출전한다. 이어 미국 동부로 날아가 2월 23일 개막하는 혼다 클래식에 나가는 등 5주 사이에 4개 대회에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일정에 대한 우려에 우즈는 “다시는 스윙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때 때 있었을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재활 등을 충분히 하면서 쉬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리안 브라더스’도 총출동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1타자 준우승을 차지한 최경주는 한풀이에 나선다. 올해부터 PGA 투어를 주 무대로 삼을 계획인 안병훈도 새해 들어 처음 PGA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김시우, 강성훈, 노승열, 김민휘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LPGA 27일 개막...김효주 타이틀 방어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인근 섬나라 바하마에서 2017년 시즌을 시작한다.

27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바하마 패러다이스 아일랜드 골프장(파73)에서 열리는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은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이다. 이번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은 관전 포인트는 ‘코리안 시스템’의 새로운 ‘대세’ 에리아 쥘타누간의 대결이다.

LPGA투어의 최대 세력인 한국 자매 구단의 선봉장은 김효주와 김세영이다. 김효주는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이다. 2연패와 함께 ‘천재 소녀’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김효주는 22일 일찌감치 바하마로 이동해 현지 적응에 나섰다.

이 대회에서 최근 2년 동안 우승과 준우승을 한 차례씩 차지한 김세영은 개막전부터 ‘세계랭킹 1위’ 프로젝트에 힘찬 시동을 건다. 김세영도 지난해 2승을 따냈지만 만족스러운 시즌이 아니라는 자체 평가를 했다. 올림픽에서 부진했고 내심 목표로 삼았던 세계랭킹 3위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LPGA투어를 훨씬 쫓아 누간을 넘어야 한다. 쥘타누간은 작년에 상금왕과 다승왕, 그리고 올해의 선수를 석권했다. 세계랭킹 5위 렉스 톱프슨과 간판스타 스테이시 루이스 등을 내세운 미국 선수들의 반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리디아 고, 전인지, 박인비, 유소연, 장하나, 박성현 등 관심 선수들은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연합뉴스